



천주교 의정부교구(<http://ucatholic.or.kr>) · 발행인 이기현 · 편집 홍보국 · 제824호 · 주소 11674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61(의정부동) 의정부교구청  
· 전화 031-850-1400(대표), 850-1433-5(홍보국) · 팩스 850-1575 · 이메일 jubo@uca.or.kr



성가소비녀회

관구 설립 2008년 12월 28일 전화 사무실 031-850-8800 주소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현석로 245

**제1독서** 지혜 11,22-12,2

**화답송** 시편 145(144),1-2,8-9,10-11,13ㄷ-14(◎1 참조)

◎ **저의 임금이신 하느님, 영영 세세 당신 이름을 찬미 하나이다.**

○ 저의 임금이신 하느님,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영영 세세 당신 이름을 찬미하나이다. 나날이 당신을 찬미하고, 영영 세세 당신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

○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하시며,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가 넘치시네. 주님은 모두에게 좋으시며, 그 자비 모든 조물 위에 내리시네. ◎

○ 주님, 모든 조물이 당신을 찬송하고, 당신께 충실한 이들이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당신 나라의 영광을 노래하고, 당신의 권능을 이야기하나이다. ◎

○ 주님은 말씀마다 참되시고, 하시는 일마다 진실하시네. 넘어지는 누구라도 주님은 붙드시고, 꺾인 이는 누구라도 일으켜 세우시네. ◎

**제2독서** 2테살 1,11-2,2

**복음 환호송** 요한 3,16 참조

◎ **알렐루야.**

○ 하느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네. ◎

**복음** 루카 19,1-10

**영성체송** 시편 16(15),11 참조

주님, 저에게 생명의 길 가르치시니, 당신 얼굴 뵈오며 기쁨에 넘치리이다.

## 그분과의 만남



김민우 클레멘스 신부  
주엽동 부주임

오늘 복음에 나오는 예리코 지역은 팔레스티나에서 가장 비옥한 땅을 가졌고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 다른 곳에 비해 풍요로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걷는 역할을 하던 세리는 당시 자기 지위를 이용하여 막대한 부를 축적하였기에 사람들로 부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탐욕의 대명사처럼 취급받았습니다.

풍요로운 예리코 지방에서 세리들의 우두머리인 세관장까지 오른 자캐오가 그 지방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윤택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사람들의 비난과 멸시에 그의 마음은 상처받고 지쳐갔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세리와 죄인을 받아주고 친구가 되어 주신다는 예수님의 소문이 들립니다. 너무나 뵈고 싶은 그분을 보기 위해 자캐오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뒤로하고 나무에 올라가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런 그를 예수님이 알아보시고 당신 곁으로 초대하십니다.

예수님을 집으로 모신 자캐오는 이미 기쁨에 넘쳐 있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서 '재산의 반을 내어놓고 횡령을 했

다면 네 곱절로 갚겠다.'라는 엄청난 말을 합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폭탄선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결심을 담아 세상에 선언한 것입니다.

그가 이런 결심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과의 만남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들었던 따뜻한 말 한마디 덕분이었습니다. "자캐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그를 걱정하고 당신 곁으로 불러주신 예수님의 한 마디가 자캐오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멸시와 비난 속에 아파하고 작아져만 가던 자캐오는 예수님을 만난 뒤 비로소 삶의 이유를 찾고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렇기에 재산 따위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고 선언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다른 삶을 살게 된 자캐오를 보며, 세례를 통해 주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우리 역시 세례를 통해 새로운 삶의 변화를 약속하고 오직 하느님만을 따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그 다짐들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합니다. 나를 이해해주는 단 한 사람이자, 전부가 되어 주신 예수님을 위해 새로운 삶을 약속한 자캐오처럼 우리들 역시 세례 때의 다짐을 다시 세우며, 변화된 삶의 모습을 이어나가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



# 내가 가고 싶은 신앙길

오상아 클라우디아 / 주엽동 성당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날들은 아직 살아보지 못한 날들이고, 가장 아름다운 말은 아직 내가 하지 못한 말’이라는 구절이 담긴 나짐 히크멧의 시가 있다. 이 시가 내 마음 속으로 콕 박힌 다음부터는, 아직 살아보지 못한 미래에 내가 하지 않은 아름다운 말과 행동으로 앞으로 만나게 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했다. 그러나 이런 생각과는 달리 영성체 후 기도시간에는 나의 직업과 관련된 지극히 개인적인 내용의 기도를 하고 있었다. 마치 성체가 녹으면 기도의 영향력이 약해지기도 하듯, 서둘러 재빨리.

그러던 중 지난 4월, 본당의 청년 회장에게 청년 도보성지순례를 가는데 스텝으로 함께 하자는 연락이 왔다. 평소 신앙심이 하나도 없는 나에게까지 이런 연락이 오다니 다들 많이 바쁘구나 싶으면서도, 이렇게까지 사람이 없다니 하는 생각도 했다. 동시에 순례에 참여할 생각조차 없는데 스텝이라니, 난감하고 미안한 마음으로 거절했다. 그러나 거절한 것이 마음에 걸려 미안했고, 신앙심이 없는 나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시던 신부님께서 스텝이 아니더라도 참가자로 함께 가자고 말씀해주셔서 신부님께도 거절하기는 차마 죄송스러워 2박 3일의 도보성지순례에 동참하게 되었다.

막상 간다고 결정을 내리고 나니 신발은 뭘 신어야 하나, 옷은 무얼 입어야 하나 나들이 가는 마음으로

떨리고 들뜨는 마음이었다. 5월이었음에도 햇빛이 뜨겁고 더웠던 첫 날, 해미성지를 거쳐 한티고개에 오르는데 너무 더워서 아무 생각 없이 무작정 걸었다. 순교자들의 압송로였던 이 길을 그분들은 걸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지, 당시 신앙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어서 이런 선택이 가능했을지 그 마음이 짐작되지도 않았다. 고개 정상에 도착해서 미사를 드리는데, 야외에서 입당성가를 부르고 기도를 하다니 스스로 생각해도 너무 아름다운 풍경이어서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지 않을까 혼자 뿌듯해했다. 다음날 홍주성지 순례길은 과거에 마음 아픈 일들을 간직한 공간이라기에는, 초록의 잔디가 주는 싱그러움과 짙은 햇빛이 주는 따사로움이 너무 예뻐서 마음 어딘가를 불편하고 죄스럽게 만들었다. 그곳에서의 미사 역시 야외 미사에서





느낄 수 있는 해방감과 자유로움을 느끼면서도 과거 그분들이 그토록 원하던 걸 나는 너무 쉽게 하고 있지 않은가 감사함보다는 죄송함이 컸다.

이후 신리성지까지 완벽한 평지로 논과 밭이 있는 농촌길을 지나 공사장을 거쳐 다시 끝없는 길이 이어져 계속 걸었다. 이때 시·공간적 여유를 두고 따로 걸기도 했는데, 그곳에서 오롯이 혼자가 되어 보니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나의 신앙과 같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다가 순례길에 동참해 길을 걷고 있는 나의 신앙심과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지만, 나는 어쨌든 지금의 모습을 지나쳐야 도달할 수 있는 곳으로 향하고 있다. 때론 진흙길을, 때론 잘 닦인 길을. 그때그때 힘들다고 투정도 부리고 풍경에 감탄도 하면서 새로운 성지에 도달하는 것처럼, 신앙생활 역시 가끔은 힘들게도, 때로는 순탄하게 나아가면서 나도 모르는 새 나만의 신앙심이 조금씩 쌓이지 않을까. 신앙심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미사를 드리고, 순례를 거절하기에는 마음이 불편한 것 자체가 아예 신앙심이 없는 건 아니구나 싶었다. 지금은 이 마음 그대로라도 지속하면 되는구나 싶었다. 그리고 새로운 장애물이 튀어나오면 그때마다 그 누구든 다양한 방법으로 나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어떻게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온 우주가 돕는 느낌. 그리고 신앙심이라는

게 뭔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지루하다 싶은 정도로 일상으로 느껴졌던 시간이 모이고 나면, 결국은 각자의 촘촘한 신앙생활이 될 것이라는 신부님의 말씀도 나를 위한 말로 받아들여졌다.

순례 이후의 기도시간에 ‘저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와 행복을 주세요.’라는 기도를 덧붙이게 되었다. 신앙생활에 의구심을 갖고 한 발 뒤로 물러서 있을 때 이끌어 준 사람들 덕분에 나의 신앙생활에 대해 돌아보고 신앙을 다시금 다지게 된 것처럼, 나도 그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주고 싶다. 아주 조금이라도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고,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아마나 스스로도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신앙인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신앙심 약한 내가 무려 교구장 주교님의 서명이 담긴 순례인증서를 받고, 여느 청년들처럼 성실하게 미사 시간에 참여해 주보를 읽다가 공모전이 있는 걸 알고 글을 쓰면서 나를 돌아보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나는 오늘, 나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아주 조금의 좋은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한다. 그러다보면 나침 히크멧의 시 구절 속 내용이 현실에서도 힘을 발휘할 날이 올 것이다. ☸



성인발달장애인 주거공동체  
조이빌리지 건축기금 마련 자선음악회

스무번째기쁨터음악회



김범진 : 조이빌리지 (inspired by 케이블루)

2019  
**11.16**.sat pm 5:00  
 여의도 **KBS홀**

- 초등학교 이상 입장 가능합니다.
- 좌석권 교환은 공연시작 1시간 30분 전부터 30분 전까지 가능합니다.

- 사회 | 유열
- 출연 | 이승환 밴드, BMK(김현정), 정동하, 소프라노 강혜정, 김계희 생활밴드, 기쁨터 가족합창단(지도 한문정)
- 주관 | 기쁨터 조이빌리지 <http://www.joyplace.org>
- 후원 | 천주교 의정부 교구 사회복지법인 대건카리타스 CARITAS DAEGUN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서울)지구
- 입장권 | R 칠만칠천원 / S 오만오천원 / A 삼만삼천원



## 참회와 속죄의 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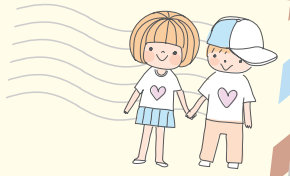
살롬!

참회와 속죄의 성당 초등학교 고학년이 '평화'를 주제로 '평화를 품은 집'에서 여름캠프를 진행했어요. 우리나라와 세계의 전쟁, 학살의 역사를 조사하고 발표하며 평화를 위해 기도했어요. 또 북한군 묘지를 탐방하며 하루빨리 북한군의 유해가 북으로 송환되기를 바라며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 기도했어요. 한편, 여름캠프의 꽃인 계곡 물놀이도 있었구요.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간절히 기도하는 여름캠프였어요~



### + 우리들의 기도

예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여름캠프에 다녀왔습니다. 여름캠프의 프로그램 중 팀별로 카드를 뽑고 역사에 대해 조사해 발표하는 활동이 있었는데요, 저는 '홀로코스트'를 조사했어요. 무척 무서운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조사를 하



고 전쟁, 학살 같은 위험한 것보다 지구에는 평화만 유지되었으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아멘.

5학년 김하연 세노리나

## 멜랑콜리아 (3)

음악 이야기

최대한 세례자 요한 신부

대신학교

20세기 중 후반부터 서양 고대 철학이 현대인들에게 갖는 실천적 유용성이 새롭게 발견된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철학이 연구자와 학자들의 세계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 생활인들이 삶을 보다 풍부하고 깊이 있게 살아가도록 자극과 영감을 주는 원천이 되는 길을 보여준 것이니까요. 고대 철학의 재발견과 함께 철학이 사변적 이론이거니와 한 것이 아니라, 삶의 기예이자 자기도야를 추구하는 수련이며 삶의 형태라는 것을 점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철학의 결실은 객관적 진리와 논리의 발견만이 아니라 나 자신의 '삶의 방식'을 성찰하고 돌보고 변화시켜가는 내적인 역량이 자라나는 데에 있다는 것이지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는 고대 아테나이의 고전 철학과 스토아 철학, 에피쿠로스주의, 신플라톤주의 등이 대표하는 후기 고대 시대의 헬레니즘-로마 철학을 망라해서 고대 철학이 현대인들에게 주는 여러 조연들 가운데 중요한 것이 '감정 교육'의 중요성입니다. 지식과 논리, 관습만으로 올바른 윤리적 선택과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감정적, 정서적 반응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감정 교육'은 윤리적 인식의 토대가 됩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비극이 단지 여흥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국가 차원의 예식의 역할을 했던 이유도, 연민과 정의감, 공동체적 감수성 등을 '감정 교육'을 통해 전수하는 것이 사회의 정신적 차원의 존립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슬픔을 이해하는 '멜랑콜리' 역시 이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윤리적 인식의 원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여러 측면에서 잔인함과 무도함이 위험하게 표출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멜랑콜리'라는 감정의 순기능에서 출발하는 '감정교육'의 길을 모색해야 될 때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문득, 듣고 싶어

지는 '비틀즈'의 노래가 있습니다. 비틀즈의 대부분의 명곡들은 폴 메카트니와 존 레논이 작곡했지만, 조지 해리슨이 작곡한 몇 곡의 뛰어난 노래들도 있습니다. 특히 비틀즈의 가장 창조적이고 자유로운 명반이라 할, 흔히 '화이트 앨범'이라 불리는 두 장으로 구성된 <The Beatles>(1968)에 실린 "나의 기타가 조용히 흐를 때 While my guitar gently weeps"입니다. 이 음반에서는 비틀즈의 앨범에서는 드물게 외부 연주자들을 초대해서 협연하는 곡들이 여럿 있는데, 이 곡에서 조지 해리슨은 '흐느끼는' 느낌을 살리기 위해 우리에게 잘 알려진 기타의 대가 에릭 클랩튼을 초대해서 기타연주를 맡기고 있습니다 (참조: 한경식, Across the universe :비틀즈 전곡 해설집, 만나푸르나, 2017).

다음과 같은 가사가 마음을 두드립니다. "세상을 보고 있으면, 돌고 있는 듯 보입니다. 나의 기타는 조용히 흐르네요. 이 모든 실수들과 함께 우리는 틀림없이 무언가를 배울 겁니다. 나의 기타는 여전히 조용히 눈물을 흘립니다."

조지 해리슨은 아까운 나이로 세상을 떠났지요. 폴 메카트니와 에릭 클랩튼이 조지 해리슨의 아들인 다니 해리슨과 함께 유명한 로얄 알버트 홀에서 열린 조지 해리슨의 추모 콘서트 (Concert for George, 2002)에서 함께 이 곡을 연주하고 노래하는 감동적인 영상을 보면서 이 사회가 정치적 합목적성에 함몰되어 인간다움을 잃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감정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합니다. 🎸

YOUTUBE로 보기



비틀즈<The Beatles> 1968  
"나의 기타가 조용히 흐를 때  
While my guitar gently weeps"  
조지 해리슨의 추모 콘서트







## 미사 · 피정 ▶▶

### 8지구 영성 피정 /금촌 성당(파견미사)

일시: 11/5(화) 12:30~16:30  
문의: 010-3495-8522  
강사: 김동희 모세 신부(청소년사목국장)

### 교구 성령쇄신 봉사회 철야기도회(미사와 함께)

일시: 매주(금) 21:10~01:20시 마두동 성당 (11/8) /주제: 찬양과 치유기도회  
문의: 교구 성령기도회 010-8729-0025

### 3.4지구 성령기도회 월피정

일시: 11/4(월) 10~16시(미사포함)  
강사: 배형진 야고보 신부(말씀의 선교 수도회)  
장소: 주교좌성당 대강당 /문의: 010-3790-0496

### 미사와 함께하는 묵주기도 1000송이

일시: 1/6(수) 13시~16:30  
미사: 김영철 베드로 신부(교구 담당사제)  
장소: 능곡 성당  
※성인 호칭기도와 함께하는 기도회  
일시: 11/13(수) 14시~15:30 /장소: 동일  
문의: 교구 성령기도회 010-8729-0025

### 매듭을 푸는 성모님께 드리는 기도 피정

일시: 매주(화) 장소: 파티마평화의성당  
문의: 031-952-6324, 10시 기도,  
11시 강의, 14시 미사(점심 제공)

### 2019 살레시오 청년 대림 피정

청년여러분, 살레시오대림피정에 초대합니다.  
날짜: 11/30(토)~12/1(일)  
장소: 살레시오회 관구관  
참가비: 학생/구직자 4만 원, 직장인 4만5천 원  
담당자: 성하윤 도미니코 사비오 신부  
연락처: 010-9630-1988 symkorea@sdb.kr

### 예수마음기도영성수련(권민자 수녀)

1박2일: 11/16~17, 12/19~22  
3박4일: 11/21~24, 12/19~22  
8박9일: 11/4~12, 12/26~1/3  
40일: 12/13~20.1/21, 4/14~5/22  
신청: 010-4906-5722, 031-953-6932  
장소: 문산 예수마음피정의집

### 피정의 집 서후리 램 쉼터

내용: 개인 피정 및 소그룹 피정 가능  
장소: 양평군 서종면 근처  
문의: 02-775-4831(평화심리상담소)

### 예수회 후원회 금요침묵피정

주제/강사: 상한 마음의 치유 -교만 다스리기 /최준열 신부  
일시/장소: 11/8(금) 10시~13시 /예수회센터(서울 마포구 서강대길 19)  
문의: 02-3276-7777 /무료, 미사봉헌

### 7지구 성령 하루 피정

일시: 11/4(월) 09:30~16:30  
장소: 주영동 성당 대성전  
주제: 유혹과 해방 /강사: 마진우 요셉 신부(대구 대교구 가정복음화국장)  
치유: 두현자 올리아나(의정부교구 회장)  
미사: 이병헌 베드로 신부(7지구성령 담당. 주업 주임) /문의: 010-9697-9004

### 성모님과 함께하는 일일피정

일시: 11/18(월) 9시~16시  
장소: 일산 성당(회비 없음, 점심 각자 지참)  
강사: 김연준 프란치스코 신부(피앗골피정센터)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010-7131-2033

### 목요 찬양 치유 대피정

일정: 매주(목) 10:30~17시  
장소:지혜의 샘(북방성교 기도공동체)  
부천시 송내동 366-5 지혜의 샘 5층  
점심 무료 제공, 찬양 축제 파견 미사  
강사: 고영민 안드레아 자문과 "셀라 민족들의 빛" 032-343-1871 / 010-3248-9705

### 서울 삼성산 2박3일 무료 치유대피정

일시: 11/8(금)15시~11/10(주일)15시  
장소: 삼성산 피정의 집  
강사: 최환진, 양창우신부 외 전국유명강사  
내용: 성시간, 매일미사, 찬양 및 강의  
문의: 010-8362-9857

### 성심수녀회 예수마음배움터 피정 및 교육

예수마음기도: 11/13~17(4박5일),  
12/26~1/3(8박9일) /이냐시오피정:  
11/29~12/1(2박3일), 12/9~13(4박5일)  
분노의 여파와 처리 연수: 11/22~24(2박3일)  
옴과 함께 걷는 영적여정: 10/28~12/9  
매주월14시~16:30

###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피정

내용: 효소단식으로 몸속에 쌓인 독소, 노폐물, 체지방을 없애고 성체신심 세미나를 통해 성체신심 은혜를 재발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영육간의 건강과 자연치유력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피정  
일시: 11/8(금)~11(월), 12/6(금)~9(월), 20년 1/3(금)~6(월) /피정지도: 토마스 신부(본원)  
장소: 성도미니코수도원(수유동)  
피정비: 36만 원(효소비 포함)  
문의: 010-9363-7784(신 글라라)

### 제주면형의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도회수사들과 함께 제주성지.역사.평화순례, 미사(성무일도), 나눔, 올레길-오름 트레킹 (모든일정은 왕복항공권 포함해서 접수가능)  
기간: 11/11-13, 11.24-27(추차도), 12/2-4, 12/6-8, 12/14~17(추차도), 1/4-6 /연말연시: 12/29-1/1(일몰, 일출, 한라산눈꽃산행)  
접수: 02-773-1463, 064-756-6009

### 예수고난회 명상의집12월피정

애도그림치유 피정: 11/12(화), 26(화)  
10:30~17시 /문의: 02-990-1004  
월피정: 11/16(토), 12/14(토) 10:30~16:20  
국악대림묵상피정: 12/13(금) 10시  
대림침묵피정: 12/16(월)~19(목), 12/20(금)~22(일) /신약통독피정: 12/27(금)~28(토)  
송년피정: 12/31~20. 1/1

###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피정(올레,미사,기도,강의)

대상: 개인,가족,본당 단체 등  
일시: 11/12~14, 11/21~24, 12/1~4, 12/6~8, 12/30~1/2 /문의: 064-796-9181

### 성 도미니코선교수녀회 피정안내

성경완독피정: 12/6(금)~14(토), 1/10(금)~18(일) /송년피정: 12/27(금)~29(일)  
문의: 010-3340-0201 /황성 도미니코 피정의집



## 교육 · 모집 ▶▶

### 2020학년도 전기 2차 교회음악대학원 신입생 모집

모집: 석사과정(5학기) 오르간, 작곡(CCM 작곡포함), 합창지휘 /근서바토리과정(4학기) 오르간, 작곡, 합창지휘, CCM, 피아노, 성악, 관현악 /입학전형일: 20.1/10(금)  
원서접수: 12/2(월)~12/13(금) 09시~17시  
장소: 가톨릭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충정로역,서울역하차) /문의: 02-393-2213~5  
<http://songsin.catholic.ac.kr/music>

### 재속전교가르멜회 회원모집

전교가르멜수녀회의 은사에 따라 관상과 활동으로 복음적 삶을 살고자 하는 평신도  
마감: 11/30  
문의: 010-5399-3371, 010-9068-7346

### 시스미나음악원 회원모집(02-363-2258)

평화방송 다함께성가를 이호중교수의 성가 발성 오전반 화,금 11시 오후반 화,수 19:30 (주1회),신상옥과 함께하는 생활성가 (월) 오전 11시, 성가반주 오르간 교실 (개인레슨)

### 한마음한몸운동본부, 피앗누리 28기 모집

모집: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  
일시: 20.1/9(목)~19(일) 캄보디아 캄봉고 마을 /상세내용: [www.obos.or.kr](http://www.obos.or.kr) 이메일 접수(11/17(일)까지) /문의: 02-727-2292

### 제26차 해외선교사교육(2020년)

일시: 20.1/13(월)~2/7(금)  
대상: 해외선교를 준비하는 평신도, 수도자, 성직자, 양성담당자  
주관: 해외선교사교육협의회  
문의: 02-953-0613

## 대안교육 산자연중학교 전입학안내

전입학설명회: 11/30(토) 14시  
 겨울진학캠프: 20.1/7(화)~9(목)  
 대상/문의: 초6, 중1 /054)338-0530

## 가르멜영성문화센터 교육일정

성시간: 매월 마지막주(수) 13:30~16:30  
 명사초청특강: 11월, 12월  
 2020-21 영성코스 II 사전안내: 16과목 16시간  
 가르멜 작은음악회 12월 21일(토) 15시  
 '쿤체르토 안티코' 작은음악회  
 접수방법: 홈페이지신청, 방문접수  
 카카오톡 채널 가르멜영성문화센터 친구추가  
 문의: 010-4149-1853, carmelcenter.kr

## 예수회 광대부연수

주제: 연애와결혼1  
 일정: 12/7(토) 13:30~8(일) 16시  
 대상: 청년누구나(선착순30명)  
 장소: 예수회센터  
 참가비: 8만 원(대학생 6만 원)  
 안내: magis.jesuits.kr  
 문의: 예수회 청년센터 02-3276-7706

## 대전가톨릭대학교 장례지도사교육원 신입생 모집

국가 자격증 취득과정  
 모집기간: 12/20(금), 17시 까지  
 문의: 044-861-7230(세종시 전의면 소재)  
 dcatholic.ac.kr 신청서 작성 팩스 발송

## 강화꽃동네노인요양원 요양보호사 모집

근무: 주 40시간 /기숙사 가능  
 문의: 032-930-8500~3

## 파주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이용자 모집

대상: 만 18세이상, 지적 발달 자폐성 장애인  
 참조: www.caritasdaegun.or.kr(사회복지법인 대건카리타스) /문의: 031-850-1482

## 강원도청소년수련원 겨울음악캠프 '이제 다시'

초등부 예비4학년~예비6학년: 1/13~15, 1/20~22(11만 원) / 중고등부 예비중1~고3: 1/10~12, 1/17~19(11만5천 원)  
 11/18(월) 09:30 수련원 홈페이지 온라인 선착순 접수(한 차 150명)  
 문의: 033-255-6602 청소년활동팀

## 학대피해아동쉼터 직원(시설장·보육사) 모집

학대피해아동쉼터 직원(시설장·보육사) 모집  
 근무지: 고양시 /신청기간: 10/23~11/6  
 문의: 사회복지법인 대건카리타스 홈페이지 참조 www.caritasdaegun.or.kr



## 안내 · 기타 ▶▶

### 기적의 메달과 함께 하는 기도모임

일시: 11/23 11시~ /문의: 010-6625-0927(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 사랑의 딸회)  
 장소: 성 빈첸시오의 집 요양원 (양주)  
 대상: 세례와 견진을 받은 관심있는 미혼여성  
 ※11/27 기적의 메달 축일 행사로 진행됩니다.  
 다. 관심있는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와 교회법연구소의 학술심포지엄

주 제: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교회 대학교와 대학에 관한 교황령  
 진리의 기쁨(Veritatis Gaudium)  
 일시: 11/9(토) 14:00~17:30  
 장소: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진리관 대강당(해화동) /문의: 02-740-9758

### 생활성서사와 함께하는 행복한 복콘서트

『하느님과 함께 걷는 사람들』의 저자 이용권 신부와의 만남. 11/9(토) 14시, 명동 성당 신관 지하1층 인터파크 /참가비: 무료  
 강사: 이용권 신부 / 문의: 945-5985~7

### 가톨릭신문 성지순례 02-2281-9070

11/16 이스라엘 일주 9일 375만 원  
 12/3 동부유럽 12일 350만 원  
 12/8 다낭 마카오 6일 145만 원  
 1/16 이스라엘 일주 9일 375만 원  
 1/27 발칸반도 12일 355만 원

### 가톨릭여행사 010-5235-3533

1/6 이스라엘 이탈리아 12일 395만 원  
 1/13 이스라엘 일주 9일 365만 원  
 1/28 이탈리아 일주 13일 430만 원  
 3/10 이스라엘 요르단 11일 415만 원

### 라파엘여행사 02-778-8565

이스라엘, 요르단 10일 12/3 289만 원  
 1/22설 299만 원 /이스라엘 9일12/21 370만 원(대한항공) 1/19 299만 원(러시아항공)  
 이태리일주 9일 1/21 설특선 299만 원  
 성모님발현지 13일 11/26 379만 원, 2/3 389 만 원

### 미국 가톨릭 사립학교 1월 정규입학 모집

대상: 초5~고1  
 기간: 단기(1년) /장기(1년 이상)  
 문의: 02-2258-8983(월~금) 그리스도의 레지오 수도회 운영 미국 학교법인 oakinternational.co.kr

## 콜롬반 평신도선교사(해외선교) 관심자모임

일시: 11/10(일) 14~17시  
 대상: 만23세~만38세 남·여 /장소: 평신도 선교사센터(성신여대입구역 1번출구)  
 문의: 02-929-4841, www.columban.or.kr

## 한국 예수회 후원회 성지순례

12/12 베트남 성모성지(다낭) 5일 130만 원  
 1/9 이스라엘, 요르단 13일 380만 원  
 2/13 베트남 성모성지(다낭) 5일 160만 원  
 3/23 터키, 그리스 12일 370만 원  
 문의: 02-722-8366(크로바여행사)

## 제19회 가톨릭평화방송 영어캠프

미국: 샌프란시스코부터 실리콘밸리와 LA까지 국내 유일의 샌프란시스코 미국 영어캠프!  
 사이판: 가톨릭국제학교 정규수업과 현지 투어  
 필리핀: 안전한 리조트에서 진행되는 1대1 수업  
 문의: 02-734-0999, www.pbccamp.com

## 제 55차 아일랜드 영어연수생 모집

초·중·고: 1/4~2/9(3, 5주 선택)  
 가톨릭계 학교에서 아일랜드 학생들과 함께  
 대·일반: 1/4~2/23(5, 7주 선택)  
 DCU 대학교 or ULearn 학원  
 세계 각국 연수생들과 함께  
 최종설명회: 12/1(일) 14시 명동성당내 가톨릭회관 2층 강당  
 후원: 원지없으신마리아 교육선교수녀회

## 61차 이태리 순례 (2020년)

일시: 5/3~5/15(12박 13일), 450만 원  
 문의: 010-9454-5648, www.terrasanta.kr  
 작은형제회 이스라엘 성지 한국 대표부

## 34회 광주광역시청소년수련원 영어캠프

출발: 1/14(화)  
 국가: 캐나다, 필리핀  
 대상: 청소년, 대학생, 가족 연수  
 문의: 광주청소년수련원, 070-4365-7297

## 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 제51차 학술발표

일시, 장소: 11/9(토)14시-18시 정동프란치스코 회관  
 주제: '교황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여야'에 나타난 '정의'및'평화'와 한국교회  
 개회사: 유희석 신부 /축사: 조영동 소장  
 사회: 최영균 신부  
 주제발표: 황경훈 소장 /이윤경 박사  
 논평: 정희완 신부 /김병수 신부  
 주최: 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 새천년복음화연구소  
 문의: 031-227-7857 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

성 소 모 임	수도회명	일 시	장 소	문 의
	예수회	11/9(토) 15:30	예수회센터 이나시오카페	010-3324-0731
	가르멜수도회	매월	지역별 장소	010-9986-5680



## 교회(6) :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이고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에페 4,4)

왕태연 요셉 신부 | 신앙교육원 부원장

세상에는 그 숫자를 헤아리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종교(宗敎)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우리나라에서 종교는 개인의 '신념'이고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물론이고 가족들 간에도 종교를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다른 종교에 비해서 그러한 '강요'가 적은 것이 가톨릭교회의 장점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종교를 강요하는 것은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더욱이 하느님께 대한 믿음은 강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요로써 신앙을 전하는 방식은 오히려 신앙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톨릭교회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결코 “하느님을 믿어도 그만, 믿지 않아도 그만”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가톨릭교회는 구원에 있어서 매우 분명한 가르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가톨릭교회의 이러한 가르침은 오직 가톨릭교회의 신자들만이 천국에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 단언은 자신의 잘못 없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실, 자기 탓 없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분의 교회를 모르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찾고 양심의 명령을 통하여 알게 된 하느님의 뜻을 은총의 영향 아래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847항)

그러나 반대로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톨릭교회를 필요한 것으로 세우신 사실을 모르지 않으면서도 교회로 들어오기를 싫어하거나 그 안에 머물러 있기를 거부하는 저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교회헌장 14항)

따라서, 아직 복음의 기쁨이나 성사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톨릭교회는 더욱 적극적으로 다가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줄 수 있어야 하고, 동시에 가톨릭교회로부터 분리된 다른 그리스도교 종파의 사람들이나 그리스도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 속한 이들에게도 하느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구원에 대해서 당당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저 사이 좋게 지내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해 침묵하거나 하느님 없이도 구원이 가능한 것처럼 다른 모든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의 신앙이 굳건하지 못함을 드러내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믿음을 위하여 훌륭히 싸워 영원한 생명을 차지하십시오. 그대는 많은 증인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였을 때에 영원한 생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1티모 6,12) ☸